시드니 대교구 한인 천주교회 소식 *Published by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Sydney Archdiocese*

발 행 처 :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발 행 인 : 임기선 요셉
주 소 : 26 Carnarvon Stree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 www.sydneykcc.org
info@sydneykcc.org
전 화 : 02 8756 3333

시드니 한인 가톨릭신문
The Korean Catholic News of Sydney

주임신부 : 임기선 요셉
보좌신부 : 노호영 미카엘
이남웅 스테파노
고해신부 : 홍 야고보
수 녀 : 좌순선 인노첸시아
최연숙 디아나
윤경남 바오로
사목회장 : 최병훈 요셉

VOL. 120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 (요한 14,20 참조) 2015년 6월 1일 (월간)

"성령의 특별한 은총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달 17일 본당의 200명 세례자가 견진 받아

지난달 17일 오후 2시 본당에서는 200명의 세례자들이 견진을 받았다. 3년만에 치른 견진성사라 그런지 신청자들이 많았고, 5주간의 교리 공부를 제대로 마친 성인 102명, 학생 78명, 시티공동체 20명의 신자들이 견진을 받았다. 세례를 진작에 받았지만 견진은 차일피일 미루고 바쁘게 살았던 신자들도 이 날 한층 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었다. 학생들도 부모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젓한 모습으로 견진을 받고 더욱 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됐다.

시드니대교구 교구장을 대신해 폴 몽크리드(Father Paul Monkerud)신부가 방문했고, 신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그는 이 날 강론에서 "성령께서는 살고, 일하고, 즐기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도들과 첫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똑같은 은사로써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다른 선물처럼, 여러분은 이 은사들을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은사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분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 매일 이 은사들을 사용하고 최선을 다해주기 기대하십니다"고 말했다.

또한 "사도들과 첫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서로 지지해주는 신앙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성령께서도 또한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는데 서로 격려하고 강력한 신앙의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부르심을 잃지 않게 서로 격려하고 세상에 예수님의 현존을 강하게 드러내는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 견진성사에서 받는 거룩한 은사들을 힘자라는 데까지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고 했다.

견진예식이 끝나고 순교자 기념관에서는 이들을 위한 조촐한 자리가 마련됐으며(사진 위) 5주간 함께 했던 견진교리반의 교사들과 반원들과 서로 서로 축하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엄마와 아빠 혹은 다른 가족에 의지하게 되고,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을 행하며 기쁘게 해드렸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들은 올바르게 고쳐주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해야 했다. 부모들이 가르치고 보여주신 것을 거울삼아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자신의 방식에 따라 일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유일무이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 그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전처럼 그 분들에게 매여 있지 않다. 우리는 그들의 영적 지도에 따라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부르신 후, 3년 동안 그들에게 당신의 사명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셨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세상에 오시어, 당신의 삶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셨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분께 배우고 의지했다. 그들이 잘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셨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 심지어 당신을 버리고 배신했을 때조차도 그들을 용서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모와 같았고 제자들은 그의 자녀들 같았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느님의 아들이었음을,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서 증명해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날 때가 다가왔을 때 당신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 주셨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아버지의 외아들로서의 당신 자리를 다시 차지하심을 기념하는 주님 승천 대축일이다. 이제 제자들은 예전과는 달리 예수님이 몸소 계시지 않아도 그 분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그들은 더욱 성숙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러나 전처럼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례와 기도를 통해 그 분과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내면과 주위에서 그 분의 영적인 현존을 알아차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더 많이 그 분과 의사소통을 할수록 더 많이 그 분을 깨닫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현존하시게 된다. 성령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와 그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보내시어 성령강림절에 사도들과 제자들 위에 내려오셨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성령강림주일을 지낸다. 성령께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사명과 어떻게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을 주시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거룩한 은사들을 베풀어주심으로서 제자들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거룩한 은사들은 슬기, 통달, 의견, 굳셈, 지식, 효경, 두려움의 7가지이다.

성령께서는 살고, 일하고, 즐기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도들과 첫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똑같은 은사로써 오늘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신다. 다른 선물처럼, 여러분은 이 은사들을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한다. 안 그러면 버려지게 된다. 여러분이 그 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은사들을 베풀어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분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 매일 이 은사들을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기도드림으로 그리함으로 그 분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사랑하도록 부르신다. 특히 주일에, 다른 신자들과 함께 교회에서 그 분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미사를 봉헌하도록 부르신다. 성경과 교회 가르침을 통해 그 분에 대해 배우도록 부르신다. 그 분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가장 궁핍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부르신다.

사도들과 첫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서로 지지해주는 신앙 공동체로 부르신다. 성령께서도 또한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는데 서로 격려하고 강력한 신앙의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부르심을 잃지 않게 서로 격려하고 세상에 예수님의 현존을 강하게 드러내는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 견진성사에서 받는 거룩한 은사들을 힘자라는 데까지 사용할 수 있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이 강론은 지난 달 17일 견진성사를 위해 시드니 대교구장 대리인으로 오신 폴 몽크리드 신부(Father Paul Monkerud)의 강론입니다.**

People in People

내 몸은 불편하지만 참사랑으로 채워주신 하느님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가 불편한 박성덕 아녜스(51)는 지난달 17일 본당에서 거행된 견진성사때 남편에게 꽃다발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시어머니로 인해 사랑하는 남편과 원치않는 이별을 했고 남편은 1999년 삼남매 중 두 아이를 데리고 호주에 이민왔다.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게 됐고 2012년 박 아녜스는 호주에 올 수 있게 됐고 마침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결합을 하게 됐다. 85년 천호동 본당에서 세례를 받고 30년만에 견진을 받은 그는 그동안의 모든 역경이 하느님께서 부어주신 값진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글을 쓰게 됐다.

현재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박 아녜스는 "시어머니가 밉고 원망스럽지 않냐? 게다가 몸을 못 움직이는 어머님의 시중을 드느라 자매님은 또 자유를 속박당했다"고 묻는 기자에게 "내가 독하지 못해 그런가 그저 불쌍하다"고 답했다.

백일 갓 지나 걸린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를 절룩거리는 나에게, 29년전 "성덕아~ 내가 네 다리가 되어줄께"라는 말로 다가와 준 남편을 만났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한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과분한 그 사람은 천사였다. 그 때 난 남편에게 말했다. 절룩거리는 모습으로 당신 곁에 서는 것 외에 절대로 당신 인격에 마이너스 되는 행동은 없을 거라고... 그 때부터 난 하느님을 찾게 됐다.

홀시어머니에 종가집 외아들. 서른 여섯에 남편을 잃고 아들을 남편처럼 의지하고 살아왔던 우리 어머니.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장애인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는 사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실망이었을 것이다.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병신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며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를 괴롭히시는 어머님.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이 이해가 갔다. 그렇게 하느님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찾게 하셨고, 마주치면 손부터 올라오는 어머님이 밉고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무서웠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천사같은 남편한테 실망주지 않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도 이렇게 힘드셨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했다. 매일같이 울면서 무서움에 떨고 있었던 나에게 주님은 어느 날 깨달음을 주셨다. 교만함을 꺾기 위해 이런 장애를 주셨다는 것을...

어머님의 핍박이 있기 전까지 나는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일찍 깨우쳐 주신 어머님께 감사했다. 남편이 동정심으로 시작했을 사랑일지라도 나는 남편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만... 착한 남편이 나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다.

참고 인내할수록 지쳐가는 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우리 아이들로 인해 또 다시 주님을 알게 됐다.

나의 가느다란 다리를 만지며 엄마 다리는 왜 이렇냐 한번을 묻지 않고, 엄마의 장애를 단 한번도 부끄럽거나 창피해 하지 않고 매일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아이들. 겨울이면 얼음장같이 차가운 내 다리를 만지며 시원해서 좋다 하고,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엄마 이렇게 하면 더 따뜻해지죠? 이제 안 차갑죠?' 하는 철부지 아이들을 위해 역사하신 그 분은 하느님이셨을까? 밤이면 아빠 들어올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리며 할머니로부터 엄마를 보호하던 우리 아이들이었다.

하느님께서는 그 귀한 삼남매라는 선물을 통해 십자가를 붙들게 하셨고, 우연찮은 기회로 재활원 봉사를 가게 하셨다. 그때서야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알았다. 하느님께서는 순간 순간마다 깨달음을 주셨고, 미움과 원망보다 감사함을 찾게 하셨다.

물론 어머님의 핍박에 견디다 못해 부딪쳐 본 적도 있고 남편과 다투며 심한 말로 상처준 적도 있다. 언제나 인간의 잣대로만 저울질을 하던 나는 이번 견진을 통해 하느님의 뜻으로 나를 우리 가정에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

생각해보니 20년 전 어머님과 시누이는 남편보다 먼저 주님을 알았고, 지난 4월 11일 드디어 우리 남편도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매일매일 변화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증거되게 하셨고 인간의 힘으로 붙들고 놓지 않을려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에게 비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어머님이 낳아 주셨기에 천사같은 남편을 만날 수 있었지만 어머님 때문에 남편과 떨어져 남편은 호주에서 나는 한국에서 각각 그렇게 13년을 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어머님을 통해(어머님이 아프셔서) 13년만에 남편과 재회하게 됐다. 그 때 나는 알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정에 역사하셨고 그렇게 나를 세우셨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비울수록 참사랑으로 채워주셨다.

하느님 사랑합니다.

한국의 천주교회사

기해 박해 6

성녀 권진이 아가다 (1)

죄(罪)와 회개(悔改)

권진이 아가다는 죽을 무렵에 영세한 진사 권영좌와 성녀 한영이 막달레나의 딸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재질을 타고난 이상적 여성의 모델이었다. 특히 남달리 뛰어난 그의 미모는 대단했다고 한다. 나이 13세에 결혼했으나 시댁이 찢어지게 궁핍하여 도저히 며느리를 데려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 시기에 중국인 유방제 파치피코 신부가 어렵사리 입국해 누각골(종로구 누상동) 정하상의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니 하상은 유신부가 미사를 봉헌할 때 복사를 맡았고, 어머니 유소사와 정혜는 식복사(食服事) 노릇을 했다. 유신부는 청국에서 태어나 이탈리아 나폴리 신학교에서 7년간 수학했다. 이 학교는 교황청 포교성이 중국 포교를 위해 세운 신학교로 학생은 모두가 중국인이었다. 그는 여기서 신부로 서품 된 후, 마침 조선전교 희망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원했다.

이즈음 정하상의 어머니 유소사는 오갈데 없는 먼 친척뻘 권진이를 받아 들여 부엌일을 돌보게 했다. 한데 누각골 집은 주일미사 때는 장소가 협소하고 이웃 집들에서는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는 데다 또한 포졸들도 한 두 차례 얼씬거렸다. 이리하여 남산 밑의 외진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남산 집은 외진 곳인데다 울이 넓고 산자락 아래 한적하게 자리한 마을이라 남의 눈을 경계할 일이 없었다. 이 마을은 전부터 가난한 선비와 청렴한 관리들이 살았으므로 "남산골 샌님이 원님 한 자리 내진 못해도 뗄 힘은 있다" 라는 말이 돌았다. 유신부도 원했으므로 이사하기로 작정했다. 이 때에 진이가 식복사로 딱 적임자이나 혼자 보내기가 왠지 서먹서먹하여 나이 지긋한 교우 박간난 마리아와 함께 살림꾼으로 딸려 보냈다.

유신부가 남산골로 옮겨간 넉 달 후 하상도 이사했다. 남산과도 가깝고, 거기서 문안으로 통하는 길목이랄 수 있는 후동(용산구 후암동)에 새 집을 사서 들게 되었다. 이 동네는 예로부터 사리뭇골이라 불리던 곳으로 소천골 유진길의 집과도 가까워 그가 남산골로 갈라치면 으레 들를 수 있는 위치였다. 권진이는 영리하고 온화한 여자였으므로 신부는 그를 매우 귀여워했다. 뿐만 아니라 진이가 "저희는 혼례라고 해봐야 맹물 한 그릇 떠 놓고 두 사람이 맞절만 했을 뿐, 혼인하고 단 하룻밤도 지내지 않았으니 동정을 지킬 의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유신부는 "혼인을 무효로 했으면 하는 뜻 아니냐?" 하고 물었다. "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요" 유신부는 잠시 말을 끊고 고즈넉이 아가다를 건너보았다. "음,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지" 그러고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내 그 혼인을 무효로 해 주지, 이로부터 아가다는 누구에게 매인 몸(유부녀)이 아니니라, 알겠느냐?" 유신부의 음성은 의외로 나긋나긋했다. 이것이 위험한 길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었으니 얼마 아니하여 현실로 나타났다.

그 날밤은 박씨 아주머니가 출타한 탓에 진이는 일찌감치 부엌 일을 끝내고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지만 사제관에 자리끼 놋그릇을 챙겨드렸다. 어쩐 일인지 사방이 조용해진 듯 싶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사제관에서 은방울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이는 바깥 사람을 부르는 유신부의 신호로 으레 진이가 대꾸하기 마련이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일까? 진이는 저고리 고름을 새삼스레 동여매고 안채 섬돌에 올라섰다. "찾으셨습니까?" "오, 아가다. 긴히 부탁할 일이 있으니 잠깐 들어오너라" "나 어제 오늘간 일을 많이 해서 몹시 피곤해. 많이 걸은 탓일까, 다리 근육이 뭉쳤나 보이, 아가다가 좀 주물러 주지 않겠나? 그대 손이 약손일 게야" 서툰 한국말이나 어버이다운 다정스런 말이었다. 촛불 언저리의 공간을 건너 그의 시선이 너울거렸다. 이어서 유신부는 밤 바람에 윗목의 촛불이 펄럭이자, 비스듬히 열려진 문을 닫으라는 시늉을 했다. "마리아는 어딜 갔는고?" "네, 친정에 일이 있어서요." 이 날 따라 마리아가 친정아버지 기제사로 집을 비워 진이 혼자였다. 이후 진이는 그의 단정치 못한 행동으로 교우들을 크게 슬프게 했다.

얼마 후 진이의 고백으로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았으나 교회 전체가 흔들릴 만한 엄청난 사건인지라, 며칠동안 고민을 하다 용기를 내어 여교인 중에서 나이로 보나 지체로 보나 지도적 위치에 있던 성녀 조증이 바르바라를 붙들고 하소연을 했다.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어서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었답니다. 진이는 그날로 그의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설마, 그게 정말이더냐? 언제부터?" 조증이는 입이 딱 벌어졌다. "아아, 어떻게 이런 일이 천주님도 무심하시구나, 이를 어쩐다?" 알고서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날밤 조증이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전해들은 성 남이관 세바스티아노는 까무러치게 놀라 바로 정하상을 찾았다. (다음 호에 계속)

기고 이진원 미카엘

죽음에 대한 두려움

Q 저는 40대 후반의 기혼 남성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3년 전에 난소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의 죽음에 대한 체험이 남들보다 조금 빨랐지만 저에게는 누군가의 죽음이 그리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병원에 가고 가끔이지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이대로 깨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연령에 따라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죽음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불안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죽음에 대해서 모두가 그런 감정을 느끼지만 모두가 같은 크기와 같은 방법으로 그 감정들에 반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반응들이 지나쳐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형제님의 경우처럼 건강에 대한 염려와 잠자리에서 느끼는 약간의 불안감은 그 심각성이 덜하지만 현재 느끼는 불편함을 간과하기 보다는 좀 더 적절한 방법 안에서 대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님의 경우, 어릴 때 아버지의 죽음과 몇 년 전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당시 어린 아이로서 죽음의 상황에 대한 여러 이미지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울고, 쓰러지고, 시신을 보았던 모습, 묘지에서의 모습 등이 깊게 자리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유아시절에 남아있는 이미지들이나 체험들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형제님의 경우에는 유아시절에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근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비로소 드러나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와 잠자리에서 느끼는 불안감의 형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조금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여행이나, 운전 등과 같이 위험한 행동을 피하는 경우도 있고 음식이나 여러 안전문제에 대해서 더욱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외부출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들은 신앙생활 안에서도 발견되는데 신앙 안에서 세상에서의 복음적 삶과는 별개로 영원 세계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면서 신앙을 그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만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형제님의 과거 상태처럼 죽음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건강을 전혀 돌보지도 않고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불안도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무관심의 모습 역시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 두려움에서 나오는 방어기제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자신의 태도를 형성하는 가장 밑바탕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과정일 것입니다.

형제님, 어떤 의미에서 죽음은 오늘 우리의 살아 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은 살아 있음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고 더욱 생명력 있고 가치있게 살기 위한 태도로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감정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무감각하고 가치를 느끼지 못해 척박해진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소중한 빗방울과 같은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들숨과 날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김인호 신부 (대전가톨릭대 • 서울대교구 영성심리상담교육원 교수)

변호사 이수붕 토마스
LSB LAWYERS PTY LTD
시드니 법대 학사(LL.B)/맥콰리대 회계학 석사/공인회계사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상가임대, 각종계약, 소송, 상해보상, 유언상속
Level 5, Suite 1, Strathfield Plaza
Strathfield NSW 2135
TEL. 9746 3588 FAX. 9746 5722
MOB. 0425 270 983

아동 가구 ★ 앤틱 가구 ★ 신혼 가구
거실 가구 ★ 침실 가구 ★ 온수 매트
아이가구 IGAGU www.igagu.com.au Tel: 02 9742 3220
18/6-20 Braidwood Street Strathfield South

대표 변호사
이장원 안토니오
(Anthony Lee)
바른길 법률사무소
NSW 주 대법원변호사, 시드니대 법대졸업,
성균관대 법대졸업 , 맥콰리대 통번역석사.
주요 법률서비스
교통사고, 음주운전 , 민 • 형사 소송, 부동산, 비지니스 매매, 각종계약서
Suite 7 Level 1 58 The Boulevarde Strathfield
T 02 9715 1771, F 02 9715 2771
M 0433 573 213

부엌가구 • 일반가구 • 인테리어 • 주문제작[공장 직영]

MOBILE: 0414.654.077 PHONE: 02.9737.9033
E-MAIL ADDRESS: TOTAL.KITCHEN@HOTMAIL.COM
ADDRESS: 67-69 DERBY ST SILVERWATER

견진을 받고 나서...

† 찬미 예수님!

저는 이번에 견진을 받은 11학년 학생 한예린 아나스타시아입니다. 견진성사를 위해 지난 5주간 교리도 참석하고 미사도 드리고 정말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도 만나게 돼 저에게는 그 시간이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교리 시간때마다 마리아 선생님, 엘리사벳 선생님, 그리고 다윗 선생님께 인생상담도 하고 기쁜 소식도 같이 나누고 이해가 잘 가지 않은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로 행복했던 순간들이었고 하느님과 관계가 깊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저희 모두를 위해 희생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삶과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저의 삶에 대한 반성도 하고 앞으로는 제가 주님께 저의 노력과 사랑을 전해드려야 겠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첫 교리 시간이 끝나고 미사에 참석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신부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고 조언 해주고 싶은 말들을 듣고 나서야 저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힘든 일에 빠져있고 희망이 없을 때에 주님께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저를 부디 도와달라는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극복하고 교리 시간 때 배웠던 말들이 저의 학교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고 마리아 선생님 말대로 견진성사를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곁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알려주시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엄청난 문턱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렇게 좋은 신자들, 선생님들, 친구들, 신부님들, 수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한다면 인생은 행복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견진성사를 받으실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다가올 때는 항상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분입니다. 그 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리에 참석하는 것, 미사를 드리는 것, 새로운 사람들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것도 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지난 한 달이 평생 잊지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 - 옷, 음식, 가방, 7개의 성사, 건강, 가족, 친구 등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세하게 생각해보고 답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하느님께 말해 드리는 것이지만 "주님. 저에게 삶을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 이번 견진성사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깨닫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예린 아나스타시아

† 찬미 예수님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견진' ' 견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5주 교리' 였다. 5주? 그래 5주… 우와, 이번엔 기간이 비교적 짧네… 기회다 하면서 견진 신청을 했고 교리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첫 주 주임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각 조로 편성돼 옮겨 가 각 반에서 말씀나누기를 하고 집에 돌아 오는데 신기하게 내 가슴이 뛰고 있는 것이었다. 마치 첫 데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 온 사람처럼 말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참으로 행복했다.

2주차, 알 수 없는 설렘과 기대로 성당에 갔는데 희한하게도 교육시키시는 선생님들의 얼굴이 한 분 한 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참 신기하네… 난 원래 사람 얼굴을 잘 안 보는 편인데 왜 이리 선생님들의 얼굴이 보이나… 참 많은 분들이 이 견진 예비자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내가 속한 조로 이동하러 기념관으로 향하는데 내 등에 전기가 오르는 느낌으로 찌릿찌릿했다. 그 때 난 '아 이건 또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3주차, 교육을 받고 돌아와 한 주 내내 반 식구들이 머리 속에 머물렀다. 생각해봤더니 내가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썼던 때가 과연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날 선생님이 마침 이름표를 다른 곳에 놓고 오셨다면서 다같이 돌아가며 이름 정도는 외워보자고 하셨다. 기도가 뭔지 잘 모르는 내가 다른 사람을 떠올리며 뭔지 모를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다. 참으로 내 자신이 신기했다.

4주차, 괜히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으로 뭔가 복받쳐 오르는 것이 있었다. 보물을 찾은 듯이 혼자 소리쳤다. '맞다. 이것인가보다. 이거였구나' 그러고는 견진 교육을 받는 내내 생각해 봤다. 그 동안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아 이거였어 그랬어' 난 또 혼잣말을 했다. '주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이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이었다. 그 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것들을 이제서야 내가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알아듣지 못했던 한 분이신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기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다른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과 눈빛과 자태가 모두 같았고 한결같았다. 그걸 보고 느끼면서 나는 뭔지 모르는 기분으로 등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가졌던 것이다. 견진 예비자들 역시 성별, 연령, 직업, 처한 환경이 각각 다른 데도 모습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하나이신 주님이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아.. 이런 것이구나… 우리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이구나' 하고 깨우친 것이다.

이 교훈과 마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꼭 기억할 것이며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기도하며 희망한다. 신부님들, 수녀님들, 교리 봉사자들께 감사드리며 오혜영 에스더 선생님께서 주신 가르침 말씀 모든 이들에게 전해드리고 싶다. 사랑합니다.

문민숙 루시아

〈본당 40주년 기념 10대 사업과 행사〉

2016년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은 10대 기념사업과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실을 기하면서도 뜻깊은 40주년이 될 수 있도록 신자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린다.

1. **개막미사:** 2015년 7월 26일 교중미사
   (개막미사 전야제 음악회:
   2015년 7월 25일 오후 8시 30분)
2. **전 신자 성경 필사 운동:**
   2015년 7월 26일 - 2016년 10월
3. **신약 성경 강좌 개설:** 2015년 8월부터
4. **초 중기(1976년-2004년) 본당역사 정리:**
   2015년 7월부터
5. **라자로 교육관 신축:**
   2015년 7월 26일 이후
6.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2015년 8월 23일 - 10월 4일
7. **150일 미사릴레이:**
   2015년 11월 29일 - 2016년 4월 30일
8. **교회 묘지 성상 건립:** 2016년
9. **새 가족 찾기 운동:**
   2016년 8월 14일 - 2016년 10월 16일
10. **폐막미사:** 2016년 11월 6일

*교육관 신축은 현재 라자로관이 있는 주차장 부지가 될 것이며 1단계는 신자들의 모금운동(2015년 7월)으로 시작해 2단계는 50만불 이상의 모금(실제금액)이 이뤄졌을 때 신축 작업에 착수한다. 자세한 모금 방법은 추후 공지하기로 한다,

〈기타 사업〉
- 안전을 위한 사업
- 유아 및 청소년을 위한 사업

〈기존 행사〉
- 성탄예술제: 2015년 12월 24일
- 경로잔치: 2016년 5월 중
- 견진성사: 2016년 6월 중
- 본당의 날: 2016년 9월 18일
- 골프대회: 2016년 10월 중

와! 성령 세미나에 갑시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령 세미나' 가 전 신자를 대상으로 6월 29일(월) - 7월 4일(토)까지 열릴 예정이다. 모두가 성령께 마음을 활짝 열어 신앙공동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봉사자: 삼성산 성령 봉사회 이창진 아폴레오 신부, 송차선 세례자 요한 신부 외 3명
- 주관: 시드니한인천주교회 성령쇄신봉사회
- 신청접수: 5월 31일(주일)-6월 21일(주일)
- 참가비: $30(토요일 저녁식사 포함)
- 문의: 0420 312 765

6월 29일(월) 오후 7시 - 10시
소개세미나와 하느님 사랑(이창진 아폴레오 신부)

6월 30일(화) 오후 7시 - 10시
십자가를 통한 구원(송차선 세례자 요한 신부)

7월 1일(수) 오후 7시 - 10시
성령 안의 새 생활(이창진 아폴레오 신부)

7월 2일(목) 오후 7시 - 10시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정의연 헬레나 회장)

7월 3일(금) 오후 7시 - 10시
안수 강의 및 성령 충만의 안수
(이창진 신부, 송차선 신부)

7월 4일(토)
오후 2시 - 3시 20분
성령 안의 성장 / 성장의 비결 (이순복 안나)
오후 3시 40분 - 4시 40분
팀대화
오후 4시 50분 - 5시 50분
그리스도 안의 변화 (진홍장 다두회장)
오후 6시 - 7시 30분
저녁 식사
오후 7시 30분 - 8시
찬미
오후 8시 - 10시
'은혜의 밤' 강의와 안수 기도
(이창진 신부, 송차선 신부)

가톨릭 교우는 미사 참례, 성사생활과 기도생활에 충실하여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 하셨듯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미사 안내

- 특전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초등부), 5시30분(중등부), 7시30분(청년부)
- 주일미사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30분, 오후 5시30분(영어), 오후 7시30분
- 시티미사 : 오후 5시 (St. Peter Julian's Catholic Church, 641 George St Haymarket NSW 2000)
- 평일미사 : 월 7:30pm / 화 7:00am / 수.목.금 9:30am, 7:30pm / 토 9:30am
- 차량운행 : 매주일: 리드컴(8:30am,9:40am,10:15am) 이스트우드(9:30am) 캠시(9:30am)
  평 일: 리드컴(수, 목, 금 7:10pm)
- 문 의 : (02) 8756 3333 / email : info@sydneykcc.org

가톨릭신문은 교우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신앙 체험, 레지오 및 소공동체 활동,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 신앙생활 수기 및 수필 등에 대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무실 / TEL. 02 8756 3333
E-Mail. info@sydneykcc.org